장티푸스의 예방과 관리

전 종 휘
가톨릭 의대 교수

일반적으로 소화기전염병(일명 水因性傳染病)은 환경위생의 개선에 완벽을 이루기 전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예방효과는 보잘것 없는 것이 된다. 상하수도가 완비되고 가정마다 수세식 변소를 쓰게 될 만큼 우리 국민전체가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현실적으로 장티푸스 감염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다.

선진국가에서 이미 실시하여 뚜렷한 방역효과를 거둔바 있는 방역대책의 초보단계도 우리나라에서 보건행정면에 반영되기 전에 세기의 총아인 抗菌劑가 도입 사용케되어 더우기 이것들이 근거없이 남용케되어 오히려 방역행정면에 차질과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 오늘날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나라에서 일으킨 도화선이 된다고 필자는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장티푸스 치료에 「클로람페니콜」이나 「암피실린」 따위가 이상적인 약제는 되지못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점에서 현재 널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약제가 진단이 확진도 되기전에 유열환자에는 무턱대고 사용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변증된 증세와 경과, 병원균 분리의 곤란, 변조된 혈청반응의 假性陰性化로 말미암아 誤診을 강요케하는 결과가 되는 동시에 과학적 검사의 필요성마저도 의식적으로 소홀히 하려는 경향을 조성케 한다. 따라서 환자는 실수보다 훨씬 적게 보건당국에 보고되기 마련이고 검사성적의 가성음성화는 保菌者의 횡행을 조장하는 폭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편 항균요법으로 치료된 자에 있어서는 再發이 적지 않고 保菌者의 발생도 옛날의 자연치유시대에 비하여 훨씬 많게 되어, 공중보건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적지않은 보균자들이 식품취급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니 (보균자의 관리가 제대로 될만큼 보건행정망이 정비되어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연중 폭발적, 유행적 또는 산발적으로 장티푸스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티푸스는 당분간 우리나라에서는 구축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점쳐 놓을 수 밖에 없다.

학문적으로 볼 때 항균제치료 후에 발생되는 보균자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어 그 하나는 옛날과 같은 膽襄性保菌者이나 다른 하나는 細胞內潛在保菌者로서 후자의 치료는 아직 별 좋은 방도가 없으니 딱한 일이며 그 진단도 쉽지 않으니 문제는 시끄럽고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포내보균을 예방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 구체적 방안은 없다.

일반적인 공중보건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현 단계의 우리의 처지로서는 개인 위생적인 면에서 각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병균은 입으로 들어가므로 손을 늘 깨끗이 씻고 우리 주위에 어지러운 곳이 있으면 없이 하도록하고 소독을 잘하여 놓도록 할 것이다. 음료수는 수도물이 아니라면, 유행기에는 끓여서 마시고 또 음식물은 될 수 있는 한 열을 가한 것을 취할 것이고 날것은 삼가도록 할 것이다.

우물에 汚物의 침입은 없는가, 수도관의 파열부가 오염되어 있지나 않은가, 냇물의 상류가 오물로서 오염되어 있지 않는가, 새마을 지도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부락에 깨끗할 물을 공급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魚具類를 날것(예, 회 초밥 생굴)으로 먹는 것은 여름철에는 더우기 삼갈 것이고 두부, 생선묵(가마보꼬) 우유제품은 열을 가하여 먹어야 안

전할 것이다. 과실이나 야채류는 몇번이고 씻어 먹되 「크롤칼키」나 합성세제로써 잘 세척하여 써도 좋다.

파리 바퀴 개미 따위를 철저하게 퇴치하는 일도 필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와같은 벌레를 막는다든지 죽여버리는 설비를 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파리의 발생이 될만한 장소를 허용하지 말것이며 특히 변소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옳을 것이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소는 제모습의 것을 만들 것이며 흡출구는 평시에 봉하도록 하고 또 뚜껑까지도 덮어두면 파리가 변소내에 산란하더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부화하지 못하게 되니 파리가 꾀지않게 될터이니 요즘의 부르짖는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부엌개조와 변소개량은 조속히 실천사항으로 채택하여 마땅할 것이다. 이 두가지가 실현되면 우리 가정에서의 급성병의 발생은 반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위와같은 가정환경 정화와 개인위생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름철 전염병, 장티푸스를 비롯하여 이질, 설사, 곽란, 식중독 따위를 다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장티푸스에 대하여서는 여름철이 오기전에 예방주사를 맞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예방주사가 실시된 이후로는 罹病率이 1/15로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또 주민의 70%가 이 예방주사로 충분히 면역되었을 때에는 장티푸스의 유행적 발생은 일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예방주사는 3년에 한번정도 지속적으로 맞으면 좋을 것이나 심장병 신장병이 있는 분이나 임신 후반기에 있는 분은 예방주사를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환자의 배설물에는 소독용 石灰乳를 같은 양으로 붓고 의류 그외의 물건에는 자불소독을 하든지 2% 크레졸소독약에 충분히 넣어서 소독하여야 할 것이다. 보균자의 검출은 당국이 힘써 색출하여 주어야 할것이며 그들의 식품다루기 직업에는 관여못하도록 당국의 감시와 지도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보균자의 치료도 가능하니 보건당국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책임지고 보균자의 치료에 역점을 둠이 옳을 것이다.

여름철 피부질환의 관리

鞠 泓 一
梨花女大 醫大 皮膚科學敎室

머 릿 말

일년 중 우리들의 피부를 가장 괴롭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더욱이나 여름을 맞는 학생들에게는 가지가지 피부병이 번창하고 그 때문에 몹시 고생하기도 한다. 가끔은 집단적으로 이상한 피부병이 발생되기도 한다.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많은 학생들이 조금만 피부를 관리하면 여름철 피부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며, 여기에 왜 여름철에는 피부병이 많아지고 또 어떤 피부병이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관리와 예방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왜 여름철에는 피부병이 많아지는가?

여름철에 피부질환이 증가되는 요인들은 고온고습의 기후적 여건과 이에 따른 주위 환경적 조건으로 여러가지 병원성세균의 번식, 피부에 해를 줄 수 있는 식물의 무성함, 모기, 빈대, 벼룩 같은 위생해충의 번성 그리고 쨍쨍 내려쪼이는 햇볕에의 노출시간의 많아짐 등이 여름철에 피부병을 많게하는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로서 산과 들에 피서가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겠으며,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전염성